미 판도라, " '몬스타엑스' 2019년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

그룹 몬스타엑스가 미국의 유명 음악 플랫폼에서 K-팝 그룹 중 유일하게 '2019년 기대주' 로 선정됐다.

미국을 대표하는 유명 스트리밍 음악 플랫폼인 '판도라' 는 최근 자사 사이트에 '2019년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 (Artists to Watch 2019)를 게재하며 몬스타엑스를 2019년 음악 영역의 기대주로 선정했다.

판도라는 올해 가입회원 수가 7,6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음악 플랫폼으로 최근 전문 큐레이터들과 함께 음악 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판도라와 빅스트 빅 사운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9년 전 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유망 아티스트로 가수, 래퍼, DJ 그리고 밴드 총 27개 팀을 꼽았다. K-팝 그룹으로는 몬스타엑스가 유일하다.

몬스타엑스는 미국의 팝 신예 노르마니(NORMANI), 영국의 떠오르는 샛별 제이드 버드(JADE BIRD), 호주의 루엘(RUEL) 등을 비롯해 최근 전 세계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다.

판도라는 몬스타엑스에 대해 "몬스타엑스는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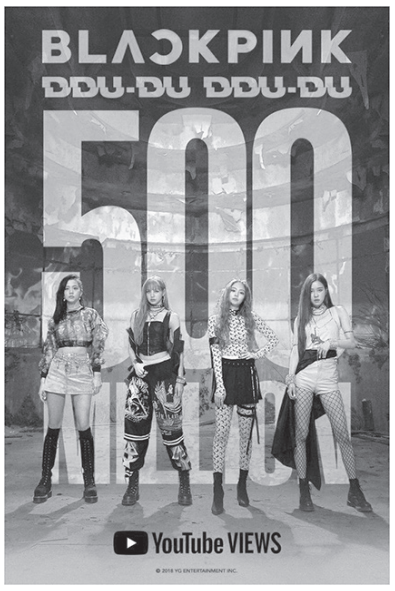
명의 멤버로 이루어진 K-팝과 힙합 보이 밴드" 라며 "이들은 아이하트라디오 징글볼 투어에 참여하는 최초의 K-팝 그룹" 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 발표한 정규 2집 앨범 'Take.1 ARE YOU THERE?' 는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7위에 올랐고, 타이틀곡 'Shoot Out' 은 그들의 9번째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톱 10에 진입했다." 고 덧붙였다.

앞서 몬스타엑스는 'Shoot Out' 활동을 통해 미국 빌보드와 영국 메트로를 비롯해 유수의 해외 매체에서 집중 조명되며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블랙핑크 '뚜두뚜두' 유튜브 5억뷰 돌파

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DDU-DU DDU-DU)' 뮤직비디오가 걸그룹 최초인 동시에 K팝 그룹 최단 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5억 건을 돌파했다.

블랙핑크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는 25일 오후 4시쯤 유튜브 조회수 5억건을 넘어섰다. 지난 6월 15일 공개한 뒤 162일 만의 기록이다. 이는 종전 방탄소년단(BTS)의 '디앤에이(DNA)' 가 유튜브 조회수 5억건을 달성할 때까지 약 1년이 걸린 것과 비교해 7개월 앞당겨진 기록이다.



그동안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는 3천만 뷰부터 1억 뷰까지 걸그룹 사상 역대 최단 시간 기록을 모두 바꿨고, 2억 뷰 돌파 시점부터는 남녀 그룹을 통틀어 신기록 행진을 펼쳤다. 블랙핑크는 2억 뷰, 3억 뷰, 4억 뷰 그리고 5억 뷰까지 연속으로 K팝 그룹 통틀어 최단 기간 안에 돌파하는 '역대급' 기록을 쓰며 'K팝 대표 그룹' 으로 우뚝 섰다.

블랙핑크는 K팝 그룹 가운데 유튜브 조회수 4억건 이상을 기록한 뮤직비디오도 가장 많이 보유했다. '뚜두뚜두' 를 포함해 '마지막처럼' '붐바야' 까지 모두 3편이 4억 뷰를 달성했다.

NCT127, 마오리 기도문 사용 논란

케이팝 그룹 NCT127(사진)이 지난달 22일 유튜브에 업로드한 신곡 '사이먼세즈' 의 도입 부분에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의 기도문 '카라키아' 를 사용한 데 대해 뉴질랜드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뉴질랜드 빅토리아대학의 마오리 지적재산권 전문가 아로하 미드 교수는 노래에 나오는 마오리 말들은 카라키아라는 기도에 나오는 말이라며 "이 말들은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경의를 표할 때 쓰는 말" 이라며 "따라서 노래에 그런 정신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 말을 잘못 사용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화에서 영감을 받는 것과 그것을 존중하려는 자세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조사도 해보지 않고 사용한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 고 꼬집었다.

유튜브에서 이 비디오를 본 뉴질랜드인들 중에는 마오리 문화를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화를 도용하는 것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어떤 사람은 아예 카라키아 부분을 삭제하고 이 노래를 다시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다.

한편 '사이먼세즈(Simon Says)' 는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통념에 자신을 맞춰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 '시몬 가라사대(Simon Says)' 게임에 빗대어 표현한 곡이다.